

## 에너지·첨단농산업·RE100...전남 서남권 대개조 '드라이브'

김지사,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 면담  
인구 57만까지 증가목표 '대혁신방안' 전달  
고흥2우주센터·광양순천 첨단국가산단도  
국회·국정청 찾아추경·국정과제 광폭행보

전남도가 목표·무안·영암·해남 등 전남 서남권을 '인구 50만명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로 대개조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인구 32만명으로 인구 감소세에 있는 서남권의 인구를 57만명 규모까지 늘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가·지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서남권 혁신 대개조의 핵심인 'AI 에너지 신도시',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국가 주도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등의 실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전남도는 대통령실·정치권에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전달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잇따라 만나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 등 현안들을 중점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미래 전남 성장을 견인하고 심각한 국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방문 '핵심 현안 해결'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서울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전남도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용범 실장 등은 김 지사가 제시한 사업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 방안은 그동안 전남도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구상했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집약한 것이다.

목포·무안·영암·해남 등 서남권 4개 시·군을 첨단산업과 신도시 인프라로 대혁신해 인구 50

만명 규모의 신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게 골지다. 우선 2035년까지 해남 솔라시티 기업도시 632만평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데이터센터 3GW·민자 15조원)'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RE100 특화산단을 조성해 대규모 'AI 에너지신도시'로 조성한다.

목포 신항, 영암 대불산단, 해남 화원산단, 영

암 기업도시 등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국립 해상풍력 연구소, 지원 부두, 배후 단지 등과 함께 기자재 특화단지까지 들어서 해상풍력지원선 국산화에 나선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서남권 신규 산단 100만평에 조성하고, 무안공항 인근 160만평에는

'첨단산업 및 RE100 융복합단지', '미래 첨단 에어로 시티' 등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밑그림이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총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서남권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광양 순천 일원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120만평), 고흥 우주발사체 특구 내 '제2우주센터'(사업비 1조6천200억원),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전남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여수산단 등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전남 SOC 예산, 한국에너지공단 정부출연금 등을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한주 위원장에게 '전남 미래 발전 건의 과제'를 전달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남이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다"며 "대통령실에 전달한 전남의 미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확신하며 정부부처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 개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역 여건과 미래 산업 흐름을 잘 결합한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北선수단 참가 '촉각'

조직위, 세계양궁연맹에 초청 의사 전달  
외교적 채널 통해 소통·협업 노력 진행

'광주 2025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개막을 2개월여 앞두고 광주시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세계양궁연맹(World Archery)에 북한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조직위는 1일 '세계양궁연맹' 실시단과의 면담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와 국제 스포츠 협력의 차원에서 북한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업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위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참가 여건 조성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강기정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세계 양궁인들이 스포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북한 선수단이 함께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어 강 조직위원장은 "대회 준비 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자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90여개 국가 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양궁 대회다.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열 속에 화합과 평화의 상징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을 포

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양궁인들의 축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28일 광주국제양궁장 및 5·18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

한국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서울(1985년), 울산(2009년)에 이어 세 번 째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청주(2007년)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비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선수의 대회가 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탈리아 토리노(2011년), 네덜란드 스페르토헨보스(2019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국내 최최다.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은 올림픽 양궁 방식으로 세계 최초·최장 6일간 치러진다.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은 '민주·인권·평화'의 산실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스포츠를 통해 그 가치를 알리는 등의 의미를 더한다.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 전 세계에 문화·역사·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박희중 기자

**Today**  
'기초의회 격조 높을수록 출석률 낮다' 6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진도 '미르길' 14면  
'한방의 힘'...KIA, 6월 25 출력 '대반동' 16면

전남 전통시장

**오감만족 맛여행의 시작!**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정원미 도시 숲길  
아라리오  
순천  
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부스 운영

기간: 매주 금·토일  
장소: 시장 유개장옥 내  
시간: 18:30 ~ 21:30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가 담긴 전통시장!**

나주목사고을시장  
Naju Moksageoul Market  
야시장, 문화공연 및 워터밤, 피크닉 존 등 운영

기간: 총5회(6.21./7.26./ 8.16./ 9.20./10.18.)  
장소: 시장중앙무대·주차장일원  
시간: 17:00 ~ 21:00

**달이 뜨면 담양 시장에서 만나!**

담양빙빙방  
담주다미담 예술구 야간 플라마켓 행사 운영

기간: 총3회(7. 19. / 7. 26. / 8. 2.)  
장소: 담양시장 일원  
시간: 16:00 ~ 21:00

**숯불생선구이와 함께하는 맛갈난 전통시장!**

고을전통시장  
도시 재생 맥주축제, 함께하는 상생 야시장

기간: 매주 금·토일('25. 9. 12. ~ 9. 27.)  
장소: 시장 일원  
시간: 17:00 ~ 21:00

**맛과 흥이 와글와글 전통시장!**

화순고인들 전통시장  
지역농산물홍보장터,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

기간: 매월 3·8일 장날 추진(10. 18. ~ 11. 15.)  
장소: 시장 내 무대  
시간: 11:00 ~ 17:00

**강진의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가 함께하는 전통시장!**

강진 병영전통시장  
'불금불과' 먹거리 판매와 플라마켓 지역 예술인 공연 등

기간: 매주 금·토일('25. 4. 4. ~ 6. 21./9.5. ~ 11. 1.)  
장소: 시장 내 중앙무대  
시간: 15:00 ~ 20:00

**날마다 정겨운 해남의 유일한 상설 전통시장!**

해남미일시장  
'당갈달야행' 먹거리 판매 및 문화예술공연 등

기간: 매주 금요일('25. 5. 23. ~ 8. 1.)  
장소: 시장 일원  
시간: 17:00 ~ 21:00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무안향토공예 전통시장  
문화 예술 공연, 먹거리·플라마켓 운영 등

기간: 매주 토요일('25. 7. 5. ~ 10. 5.)  
장소: 시장 일원  
시간: 18:00 ~ 22:00

**바다의 진미를 가득 담은 전통시장!**

완도 전통시장  
문화 예술 공연,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

기간: 매주 토요일('25. 6. 1. ~ 30. / 10. 1. ~ 31.)  
장소: 시장 일원  
시간: 18:00 ~ 21:00